■ 한국서 첫 대선 투표 필리핀 온누리안 안젤리타 발레즈 씨

"이주민 차별 없애는 정책 기대"

공약·토론 분석하며 밤새 고민
"비방 선거 아이들 배울까 걱정"

"거리에서 유세하고, 공약 경쟁보다는 상대방 비판에만 열올리는 것 등이 필리핀 대통령 선거랑 똑같아요. 한국에선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결과도 투표가 끝나자마자 나오는 것만 빼고요."

필리핀 출신으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10년째 광주에서 살고 있는 안젤리타 발데즈(42·광주시 서구 치평동)씨. 그는 19일 오후 1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전남고등학교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2002년 한국으로 귀화한 이후 처음으로 맞는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공약집도 꼼꼼히 보고, TV 토론도 빠지지 않고 시청했다"고 말했다.

발데즈씨는 이번 대통령 선거과정을 지켜보면서 깜짝 놀랐다. 하나는 거리 유세나 상대편 비방 등이 고국인 필리핀과 너무 똑같았다는 것이다. 그래도 한국에선 정책대결로 후보를 뽑을 줄 알았는데, 너무 '네거티브' 한 선거운동만 해서 "애들이 배울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둘째는 인터넷을 이용해 재미있고 톡톡 튀는 선거 홍보 UCC(User Created Contents·사용자 제작 콘텐츠) 동영상을 선보이는가 하면, 개표결과를 3~4시간 만에 알 수 있는 것 등이었다. 그가 살던 필리핀에서 선거 결과가 일주일이 넘어서야 발표되곤 했기 때문이다.

선거운동이 너무 상대후보 흠집 잡기에 치중했다고 해서, 실망만 한 것은 아니다. 발데즈씨는 남편 김상철(46)씨에게 잘 모르는 말은 묻고, 토론도 하며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한 사람을 가려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우리 같은 결혼 이주 여성이 잘 살게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경제를 살릴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둔 엄마로서 사교육비 없는 세상을 누가 만들 수 있을까도 고민했습니다."

발데즈씨는 하지만, 누구든 대통령이 되면 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 교육 개혁·경제 살기기 등에 힘써줬으면 한다고 바랐다. 특히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없앨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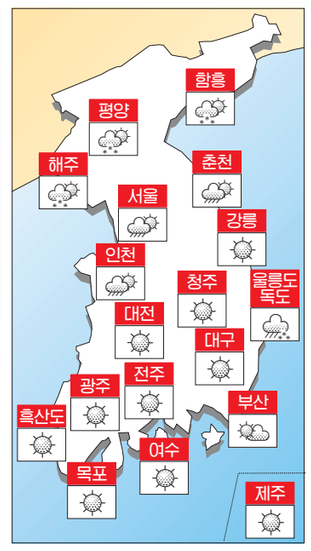
필리핀 이주여성 발데즈씨가 2002년 귀화한 후 처음으로 19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전남고등학교 투표소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따뜻한 햇살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 한때 구름 많겠다.

12월 20일 (음 11월 11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 조금	0~10℃
목 포	구름 조금	1~10℃
여 수	구름 조금	2~11℃
완 도	구름 조금	1~11℃
구 례	구름 조금	-3~11℃
해 남	구름 조금	-3~11℃
장 흥	구름 조금	-3~11℃
고 흥	구름 조금	-2~12℃
순 천	구름 조금	-3~11℃
영 광	구름 조금	-2~10℃
진 도	구름 조금	-2~12℃
전 주	구름 조금	0~9℃
남 원	구름 조금	-3~9℃
흑산도	구름 조금	4~10℃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목 포 밀물 10:38 22:39 썰물 03:19 16:06
여 수 밀물 05:44 17:46 썰물 11:45 --:--

▲해뜸 07:36 ▲해짐 17:23 ▲달뜸 13:51 ▲달짐 02:5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날 씨						
최저/최고	1/10	2/9	5/8	2/9	2/9	3/10

비교내신제 적용 대학 재수생들 다수 몰릴 듯

20일 시작될 대입 정시전형에서 비교내신제를 적용하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특목고 출신 재수생과 재수생들이 비교내신제를 실시하는 대학에 다수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시에서 재수생에게 비교내신제를 적용하는 대학은 지난해 삼수생에게 비교내신제를 적용했다가 올해에 한해 재수생도 대상에 포함한 고려대를 비롯해 경희대·동국대·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한양대·홍익대 등이다.

현 고3의 경우 새로 바뀌게 된 입시전형을 첫 적용하는 학년으로 내신의 영향력이 강화된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어느 해 수험생보다도 내신에 큰 비중을 두고 공부해 왔다.

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인하대 등은 삼수생을 대상으로, 건국대·서울시립대·이화여대·한국외대 등은 사수생을 대상으로 비교내신제를 적용한다.

광주·전남에서는 조선대가 사수생(2005년 3월 이전 고교 졸업자)에게, 순천대가 재수생(2007년 2월 이전 졸업자)에게 각각 비교내신을 실시한다.

전남대와 호남대 등은 검정고시 출신자 등 내신 성적이 없는 수험생에게만 비교내신을 적용하고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비교내신제=수능성적에 연동해 내신성적을 매기는 제도. 그동안 내신을 산출하기 어려운 검정고시 출신 학생이나 내신이 불리한 특목고생·삼수생 등에 한해 적용해 왔다.

내일부터 겨울방학

21일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광주시내 학교들이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두암초·중앙초·살레시오초 등 초등학교 일부가 21일 방학식을 가질 예정이며, 늦어도 29일까지 초등학교 방학 일정이 시작된다. 개학은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로 예정돼 있다.

중·고교의 경우 광주 예술고가 27일로 조금 일찍 겨울방학 일정을 시작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오는 29일에서 내년 1월2일 사이에 겨울방학을 맞는다.

개학은 내년 2월 말로, 2월 중순에 개학한 뒤 다시 봄방학에 들어가는 일은 없어지게 됐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초반 큰 격차 실망감에 개표장 썰렁

배우 문근영, 첫 대선 '소중한 한 표'

가족과 함께 투표

○…광주 출신 영화배우 문근영〈사진〉이 19일 오후 집 부근인 북구 매곡동 매곡초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어머니와 사촌오빠 등 가족과 함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

1987년생인 문근영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첫 투표를 했으나 대선 투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남악신도시 투표소 없어

○…전남도청이 소재한 무안군 삼향면 남악신도시에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 아파트 입주민들이 큰 불편.

이 지역은 최근 아파트 입주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유권자 수가 2천384명에 달했지만, 입주민들은 신도시에서 4~5㎞ 떨어진 삼향면사무소 분회 경로당에 설치된 투표소까지 차량 또는 택시를 이용해 투표.

무안군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설치 기준일이 지난 2월28일인데 당시 유권자 수가 적어 투표소 증설이 어려웠다"며 "선거가 끝난 뒤 투표구 분구를 하게 되면 다음 선거부터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

■ 투·개표 이모저모

○…과거 대통령 선거 때 개표소 앞에 각 후보 지지자들이 징과 꽹과리를 치며 밤새 연호와 구호를 외치고 참관인들이 신경전을 벌이던 것과는 달리 이번 대선 개표는 한산한 가운데 진행.

출구조사 결과 일찌감치 1·2위 후보 간의 예상 득표율이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면서 광주·전남지역 개표소 주변은 지지자들의 발길이 끊긴 채 썰렁.

시민 조모(35·광주시 서구)씨는 "선거 막판 이 후보의 BBK 의혹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정동영 후보의 '막판 역전'을 기대했는데 실망이 크다"면서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 나타난 선거 결과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표현.

분류기 오작동 '진땀'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시작된 서구지역 개표 작업 중 '투표지 분류기'가 잦은 오작동을 일으켜 개표원들이 진땀.

오후 7시 부재자 투표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표작업에 들어간 염주체육관 개표소에는 모두 8개의 '투표지 분류기'가 설치됐으나, 불과 50분만에 개표장 제1열에 설치된 분류기가 수십 차례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20여 분 동안 개표 작업이 지연된 것.

선관위 측은 서구지역 5천200여 장의 부재자 투표용지를 제2열의 분류기로 옮겨 개표작업을 진행했는데, 기계담당 직원은 "2002년 대선에 비해 투표용지가 너무 긴데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 두 장의 투표 용지가 서로 엉겨붙어 일어난 현상인 것 같다"고 분석.

이 같은 '투표지 분류기' 오작동은 광주 서구뿐 아니라 서울 여의도·영등포 개표소 등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 선관위 측이 한때 긴장.

광주시장·도지사도 투표

○…박광태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부인 정말례 여사·아들 박자형씨와 함께 전남중학교에 마련된 서구 치평동 제 3 투표소에서 투표.

박준영 전남지사도 이날 오전 8시께 부인 최수복 여사와 영암군 삼호읍 중앙초등학교 제1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후 헬기를 타고 전북 군산 앞바다와 목포·영광·신안 해역을 둘러보고 기름 유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

장애인·노인 투표 도와

○…광주시 소방본부 119 대원들은 이날 '119 투표 도우미'에 미리 도움을 청한 유권자 90명의 투표 도우미로 활동.

장성군 북하면 '영락 요양원'에 입원 중인 180여 명의 노인도 요양원에서 제공한 봉고차 3대와 사회복지사 4명의 도움으로 모두 투표에 참여.

사회복지법인인 담양 '덕산' 측은 휠체어 탑재 차량 1대와 스타렉스 9인승 승합차·운전 기사와 간호사 등을 담양군청에 대기시켜 놓고 장애인 단체나 선관위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현지 출장 지원 활동.

/김여울·이은미·강필상 기자 wool@kwangju.co.kr

"질시·불화 버리고 사랑으로 공존을"

정추기경 성탄 메시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사진〉 추기경은 19일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신앙인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교회는 성탄의 신비를 살고 우리 사회에 빛과 희망을 주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추기경은 또 "성탄은 온 인류가 경축하며 기쁘게 맞이해야 할 구원의 축제"라며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 반목과 질시 불화와 분쟁이 멎고 사랑과 평화 자비와 용서가 우리 모두와 온 누리에 가득히 내리기를 간절히 빈다"고 강조했다.

대선과 관련, 정 추기경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는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며 "참다운 일치는 모두를 같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함께 공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